

## 구역공과 제3권 (2단원 : 인간의 타락과 구원) (제10과) 타락한 인간의 성품

- 본문 : 로마서 1:18-32
- 요절 :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5)
- 찬송 : 216장(새찬송가 424장), 256장(새찬송가 515장)

### 공과내용

우리는 매일같이 마스크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 가운데는 밝고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살인, 폭행, 유괴, 절도, 사기 등과 같은 흉측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는 범죄를 가능케 만든 사회에 대하여 분노하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범죄가 줄지 않고 더욱 지능화되고 흉포화되어 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떤 범죄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누구나 그 내면에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흙에 심겨진 씨앗이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만나면 싹을 내듯이, 인간의 죄성도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언제라도 실제적인 악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인, 폭행, 절도, 거짓말 등과 같은 악행을 ‘사람에 대한 죄’로 여깁니다. 물론 그런 범죄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본질상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데서 모든 범죄는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전 3:11).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욕구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충족시켜 왔습니다. 고금을 통틀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신들을 숭배해 온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지만 우상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1~23) 하신 성경 말씀과 같이, 인간들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에 비천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가증한 죄악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범죄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가장 가증하고 무서운 죄악으로서 다른 모든 범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 2. 타락한 인간은 부도덕한 남녀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창 2:18).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창 2:21~23).

여자가 흙으로 창조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것은 여자가 남자와의 분리할 수 없는 연합과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4)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육신을 하나로 연합케 하는 결혼의 신비와 함께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욕심을 따라서 일부 다처제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오늘날 문명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폐습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창 6:1~6)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과 같이(창 19:1~11), 현대인들 가운데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딤후 3:4) 부끄러운 욕심을 위해서 부도덕한 일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롬 1:26~27).

그러나 최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던 하나님은 문란한 현대인들에게도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이즈’의 창궐은 그 보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에 따라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롬 1:28~3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담에게서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하므로 그의 모든 생각과 행위 역시 하나같이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꿈씩이라도 살펴본 사람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의 취약성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그 본분을 저버렸을 때, 인간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남자와 여자의 순리를 거스르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죄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최악이 관영한 원인도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된 성품을 가진 옛 사람을 벗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